궁금했어요

미사예물을 바치지 않고서도 미사 중에 죽은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연미사가 됩니까?

반드시 미사예물을 바친 경우에만 연미사가 성립됩니다. 미사에서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연미사'는 아닙니다.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석한다고 해서 '감사미사'라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하느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예물봉헌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십니다(『소곤소곤 이게 정말 궁금했어요』, 112-113 참조). 성경은 교회가 예물을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2코린 9,7) 바칠 것을 강요하지 않지만 "자발적 열의에 어울리게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2코린 8,11) 바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힙니다. 그분을 향한 간절함은 스스로 우러나는 영혼의 진심입니다. 그분께 감사한 마음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미사예물은 그분께 봉헌해 올리는 믿음과 감사와 사랑의 표지입니다. 예물을 바치는 이유가 이리 명확한데 성립 여부를 궁금해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요? 그분의 뜻에 따라 그분의 명령을 이행하는 그리스도인은 따지고 분석할 것이 도무지 없습니다.

제발, 예물을 바치지 않아도 '연미사'가 성립된다면 바치지 않는 쪽이 '훨씬 이익'이라는 생각 탓에 질문한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모든 미사의 본질은 '하느님을 찬미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부디, 최선을 보시는 그분, 그분을 향한 진심과 사랑만이 전부임을 기억하세요.

『소곤소곤 이건 알아두세요』, p.54~56 장재봉 신부 저.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16|11 | 제85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 사목국
http://samok.cathms.kr

곤경 속에서 신뢰하는 이의 기도

(시편 31,2-9)

시작 성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 행 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저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주님,
저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소서.
– 주님, 참으로 당신만이 저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언제나 신뢰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 행 자 • 어느 분이 시편 31장 2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31,2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하소서.
3 제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시고
어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4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생각하시어 저를 이끌고 인도하소서.
5 그들이 숨겨 놓은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피신처이십니다.
6 제 목숨을 당신 손에 맡기니
주 진실하신 하느님, 당신께서 저를 구원하시리이다.
7 저는 허황된 우상 섬기는 자들을 미워하고
오로지 주님만 신뢰합니다.
8 당신의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당신께서 저의 가련함을 굽어보시어
제 영혼의 곤경을 살펴 아시고
9 저를 원수의 손에 넘기지 않으시며
제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진 행 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 행 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 행 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삶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낸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구원이 삶의 풍요나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적이 있으면 이야기 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 행 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안에서 곤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요즘, 소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그들 인생에서는 정말 아무런 곤경이 없을까요? 그렇겠군요. 곤경이라는 단어조차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겠네요. 그들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돈만 많으면 걱정이 없을 만큼, 우리 인생이란 그리 만만하지 않으니까요. 저 역시 곤경은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려움이나 곤경은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받아 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극단적인 결심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목자가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게 되자 누군가에게 편지 한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앉아 지나던 택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택시가 서더니 내가 장애인인 것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번거로웠겠지요. 두 번째 택시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세 대, 네 대…. 열 대 이상의 빈 택시가 지나갔고 나는 늦은 밤까지 길바닥에 버려진 채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떠나가는 택시를 보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 저 택시를 운전하는 아저씨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깊은 밤에 장애인을 길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분들이 상처받지 않게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편지를 다 읽을 때쯤 눈물을 흘리는 자신을 보았다고 하네요. 위로의 눈물 이었겠죠.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을 모든 인간의 행위 속에 들어있는 "하느님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곤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느님을 신뢰했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 행 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 행 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 침 기도

진 행 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 침 성 가

진 행 자 • 가톨릭 성가 34장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2-3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 산호동본당 구역분과장 윤재선 카타리나 -

4년 전 산호동본당은 30여 년이 지난 노후된 건물을 깔끔하게 단장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며 정이 들었지만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던 낡은 성전이 편안하고 산뜻한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도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분위기로 변화된 성전에서 산호동본당 식구들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본당 안에는 멋진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커피를 마시며 담소도 나누고, 독서와 음악을 즐기며, 인터넷으로 필요한 자료를 찾는 등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산호동본당은 주일 미사 참례하는 신자가 200여 명, 전체 13개 반으로 구성된 작지만 가족적인 공동체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소공동체에서 어르신들과 신자분들께 주일미사 후 점심 한 끼를 정성껏 준비해 드리기 시작한 것이 6년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 신심단체에서 경제적으로 성의껏 후원하고, 음식준비는 각 반별로 반장님들의 지휘 아래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끼에 2000원의 밥값을 받지만 어려운 분들께는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매주일 식사를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성부회장님과 각 반장님들을 비롯하여 반원 봉사자들의 사랑으로 신자들은 맛있는 식사와 함께 훈훈한 정을 나누며 주일을 보낸답니다. 또 본당에서는 쌀뜨물로 EM을 만들어 보급하는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교황님께서 권고하시는 병 들어가는 지구 살리기 운동에 함께 하려는 작은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 외에도 전례봉사, 병자방문 등과 함께 소동동체 모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임을 통해 때로는 위로와 감사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방문기도와 미사봉헌도 해드리며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습니다. 아쉬운 점은 형제님들의 출석률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반장님들의 열성적인 노력이 있기에 앞으로 더 활기찬 소공동체가 되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좋은 강론말씀으로 저희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도록 이끄시는 신부님, 저희들을 지지해 주고 함께해 주시는 수녀님이 계시다는 것도 하느님의 은총이라 생각합니다. 축복받은 우리 본당 신자 모두가 평신도의 사명인 그리스도의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성실히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있도록 하느님께 은혜를 청합니다.